

3월 2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토티유업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 주5일수업제가 논의된 것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 합의를 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경제계의 근무시간단축 논의와 관련법 개정이 주5일수업제 도입에 촉진제가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5일수업제 시행을 2005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티유업에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기 적성교육, 체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토티유 교육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적극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이나 학력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현장 적응·문제해결·새로운 지식 창출 능력, 사고력, 비판력, 판단력, 창의력 등을 포함한다. 주5일수업제는 학습공동체 창조, 교사의 자기개발, 학교·가정·사회의 파트너십 강화, 평생학습 토대로서의 학교 구축, 교육방법의 개선과 경험의 균형화 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주5일수업제에서는 지식전달과 관리를 위한 학교 조직 관념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목적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자기주도 프로그램 가능 인력 양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단



**불자 세상보기**

**정진환**  
동국대 교육학 교수, 중앙도서관장

**‘책’ 없이 배우는 토요일**

순한 수업일 속을 통한 학교근무시간의 단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학교를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주5일수업제는 교육공동체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학교는 지역사회교육의 거점이 되어야 하고, 교사를 리더가 되어야 한다. 늘어나는 휴일을 교사는 자기개발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지나치게 간접경험에 의존하기 쉬운 지금의 교육을 제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조건으로도 적격이다. 현재 간접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을 관찰, 조사, 견학, 사육

봉사, 근로 등 자연체험, 생활체험, 연령간의 체험, 자원봉사, 직장체험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주5일수업제 시행에 맞춰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우선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별 대응 가능한 시설이나 자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인적 자원 확보 및 협력인사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토티유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주5일수업제 운영을 학교단위에서 지역단위

로 폭을 넓히는 사고가 필요하다. 단위학교별로 대응하기 어려운 활동도 학교 간 연계를 통한 실현 가능해지는 것이 많다.

대입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특히 고교 주5일수업제 운영은 난제일 수 있다. 물론 초·중·고를 막론하고 교과별로 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토티유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입장에서는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교과학습이 토티유무일 활동의 일부가 아니라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며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주5일수업제는 긴장 해소와 사고의 폭을 넓히는 교과외의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스포츠 예술 문화활동이나 중·고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토티유에 활용하는 방안도 권할 만하다. 진로교육은 자신의 미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설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대학교 수 등 외부강사를 초빙한 분야별 특강과 상담 개최, 열고 직접 현장 체험 등도 있다.

시험중심·주입식에서 벗어나 교육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5일수업제가 답답하고 슬 막히는 우리 교육상황을 ‘숨쉬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미래의 불교는 어떻게 있을까? 지금 우리 불교계가 하는 모습 속에 있다. 우리 불교계가 하는 모습으로 보아 미래의 불교는 낙관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진단일 수밖에 없다.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자. 가장 가까운 미래에 청년불자로 들어올 대학생 불자회의 활동이 거의 고사 직전이다. 외적인 지원이 거의 없이,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타 종교 동아리의 활동에 밀려 존재 자체가 위협을 겪고 있는 대학 불교학생회의 모습은 바로 가장 가까운 불교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또 하나, 젊은 세대가 쉽게 관심을 가지고 불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불교의 현대적 재해석과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치자. 고사 상태의 대학생 불자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도 눈감고 귀막고 있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미래 세대의

**대불련 ‘고사’ 시킬 것인가**

불자 양성에 대한 무관심, 불교계 전반에 퍼져있는 이 고질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내일의 불교는 없다.

우선 당장 대학생 불자들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그들이 올바른 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님, 스님들, 사찰들과 연계를 맺어주는 지원이 따라야 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시 고사상태에 빠져있는 ‘대학생불교연합회’의 조직을 활성화하여 그들이 지역적 전국적 유대 속에서 큰 움직임을 일으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불자들이 스스로의 모색을 통해 자신들 세대에 맞는 불교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당장 시수가 들어오는 계층 포교에만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불교계의 슬픈 모습이다. 그러다간 머지않아 사찰과 불상은 즐비한데 불자는 없는, 불교의 암흑기가 올지도 모른다. 그것을 막을 가장 시급한 작업이 무엇인가? 차세대 불교의 주역이 될 대학생 불자들의 맥을 살리는 일이다. 한 세대의 공백이 오면 그 후유증은 그 뒤에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쉽게 메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꺼져가는 대학생 불자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나서자. **■ 성태홍(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불명에 퇴진**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출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일종이다.

**〈대실차니건자소설경〉**

최근 3개월 새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현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성 건설교통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불명예스럽게 사퇴했다. 직계가족이나 주변 인사의 땅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인사청탁 등의 각종 의혹이 불러온 결과다.

일련의 인사파동은 공직자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전히 이런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읽지 못한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무서운 경고다.

뒤늦게 정부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체제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복잡하게 분산시켜놓은 재산과 비위를 모두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에서부터 말단공직자까지 윤리관을 확립하지 않는 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며, 공직자들의 자기성찰과 변혁, 국민들의 인내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어쩌면 그 이상의 역경이 뒤따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실현해야 할 명제에 분명하다.

**■ 박봉영(내재부 기자)**

**열린마당** 조계종 비구니부 신설

이에 대해 많은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부 신설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시대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비구니부 신설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본다.

**비구니부 신설은 시대적 요구**

최근 어느 비구니 스님이 조계종단에서 추진 중인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 추진을 놓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찰 10곳 가운데 비구니 사찰은 한곳도 지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총무원 집행부의 고의적인 행정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종단의 비구니에 대한 소외와 인식부족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를 통해 최근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중앙총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비구니부의 신설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분명 조계종 종현에는 비구와 비구니가 2부승가의 구성원으로 명문화되어있다. 구성원 가운데 절반인 7000여명이 비구니인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취임과 동시에 총무원 문화부장으로 비구니 스님을 임명하기까지 했다. 종단 내 비구니가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는 종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21세기는 종교 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 따라서 우리불교가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대사회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는 비구니의 활용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이제 조계종은 비구니 전담기구의 신설을 통해 비구니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윤달 스님(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열린마당** 조계종 비구니부 신설

이에 대해 많은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부 신설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시대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비구니부 신설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본다.

**종법 등 신중한 검토 필요해**

조계종 종법을 차지하는 비구니스님들의 행정 참여는 점에서 비구니부 신설에 원천적으로 찬성한다. 또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남성중심에서 양성평등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하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비구니부 신설을 주요 뼈대로 한 종헌 개정안이 제166회 임시중앙총회에 상정될 수 있었던 동력은 서울 수사에 건립된 비구니회관에 있다고 본다. 즉 새로 건립된 비구니회관에서 회장단을 주축으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내놓았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비구니부 신설 종헌 개정안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굳이 비구니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비구니 스님들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중앙총회 재정분과위원장으로서는 비구니부 신설에 따른 재정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종단 예산 중 실질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재정확충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부처신설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비구니부를 신설하기에 앞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 어떤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분리해 비구니부에서 담당할 것인지의 효율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현 종단 상황을 살펴볼 때 비구니부 신설은 쉽게 논할 사항이 아니다. 원로스님과 율사스님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이 모인 공청회 등을 개최해 먼저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종헌종법 제·개정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적 스님(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중국 하남성 불교사찰 전세기 투어**

최초부터 최고의 사찰을 한번에 만날수 있는 기회

● 출발일: 2005년 5월 1일 (4박 5일 투어) ● 요금: 499,000원

최고의 소림사 최초의 백마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포청천의 포공사 관우의 관림 등

● 주요명소: 달마대사가 설립한 중국최초 불교사찰 중국 3대석굴 판관 포청천의 삼국지 관우의 묘지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포공사 탐림

●비자 신청 서류  
여권 카피 1부 팩스 송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마감: 2005년 4월 25일

◆요금: 499,000원 ◆출발일: 2005년 5월 1일

DATE	CITY	TRANSIT	TIME	LOCAL SERVICE	MEALS
5월 1일	인천	전세기	22/00 23/00	전세기로 서울 출발/경주 도착 후 호텔휴식	
호텔: 경주 종산호텔(4성급) 또는 동급					
5월 2일	경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조식 후 등불,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역대고승의 부도인 탑림, 소림사무술 시범단 무술시범관, 현지 중식 후 중국최초의 불교사찰 백마사 관광. 낙양에 도착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호텔: 낙양 모란성 호텔(4성급) 또는 동급					
5월 3일	낙양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중국 3대 석굴인 용문석굴, 백린 관광. 현지 석식 후 삼국지 관우의 묘지인 관림 관광. 개봉으로 향함. 석식 및 호텔 휴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호텔: 개봉 옥산 호텔(3성급) 또는 동급					
5월 4일	경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북송의 화가 장백단이 그린 "청명상하도"의 거리를 재연한 청명상하도 관광, 판관 포청천의 기념관 인 포공사 관광. 현지 중식 후, 칠발공회, 송도어가 관광. 경주로 향함 석식 및 호텔 휴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호텔: 경주 미래호텔(4성급) 또는 동급					
5월 5일	경주	전세기	20/00 22/50	호텔 조식 후 하남성 박물관, 향학 유람구 (수륙양용보트 USD10) 관광. 현지 중식 후 대하촌 유적 관광. 전세기로 귀국	호텔식 현지식

MEETING	SENDING	GUIDE FEE	AIRPORT	SIGHTSEEING
● 선 택 관 광: 수륙양용보트 탑승 향학 유람(10/1인)	● 불포함사항: 기사와 가이드(20/1인), 여행자보험	● 포함 사항: 현지 가이드, 차량, 식사, 호텔(2인1실), 입장료, 관광지 전기차, 인천공항세, 전쟁보험금, 출국세	<b>전세기, 인, 관, 계로, 출, 도, 착, 시, 간, 변, 동, 기, 능, 성, 있, 습, 니, 다.</b>	

● 이상 내용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 준비사항: ① 현지 가이드와 기사님은 미화(USD)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② 현지 음식이 기호지고 향이 강하니 개별음식(김치, 커피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국내 상점에서는 한국돈 및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니 약간의 위생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약 금: 175,000원 (1인 + 비자비)입금순으로 선착순 마감.

◆연락처: [주]격린여행사 TEL 02)337-9337 FAX 02)337-2321, 3858